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고 영 지¹⁾ · 김 인 경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학생 입학 경쟁률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전공분야는 간호로 12.5:1이고, 4년제 대학에서는 간호학 경쟁률이 8위로 10.4:1을 나타내었다. 이와 더불어 간호전공은 4년제 대학에서 정규직 취업률 1위로 91.9%이며, 전문대학은 정규직 취업률이 89.5%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09).

이는 최근 대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열의가 커지고, 그 경쟁은 치열하면서 취업이 유리한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현업에서 일할 기회가 많은 간호학생의 경우 뚜렷한 이념과 목표가 없는 간호활동은 바람직한 간호 상과 간호현상의 부재를 초래하는 근본원인이 되므로(권영미, 윤은자, 2007) 간호의 미래를 주도할 간호학생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활동,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 견해로(Weis & Schank, 2000)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임상현장에서 직업만족, 간호업무 수행능력, 조직몰입의 정도를 높이며(한상숙, 김명희, 윤은경, 2008; Hwang, Lou, Han, Cao, Kim, & Li, 2009; Hallin & Danielson, 2008; Hampton & Hampton, 2004), 이직의도, 소진, 역할갈등의 정도는 낮아지는

것(한상숙 등, 2008)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간호계의 문제 중 신규간호사가 임상에서 현실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문직 사회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함을 고려해 볼 때 간호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전문직관과 관련된 특이할 만한 결과를 살펴보면, 간호전문직관의 정도가 간호학생과 실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 사이에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고, 간호학생과 임상경력 5년이상인 실무경험이 풍부한 간호사 사이에서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영미, 윤은자, 2007; Leduc & Kotzer, 2009). 이를 통해 학교교육이 간호전문직관의 토대를 다져주는 초석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4년제 간호학생과 RN-BSN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RN-BSN학생이 보다 간호전문직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결자, 백승남, 2004).

간호전문직관 형성과 더불어 간호학생이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역할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준비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학생의 경우 졸업 후 취업 등의 진로문제에 있어서 다른 학과에 비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이점을 고려하여 입학했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이 미흡하리라 본다. 진로준비행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첫 직장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이승구, 이제경, 2008)를 볼 때,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을 고려한다면 간호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학교교육이 필요하다.

주요어 : 간호, 학생, 간호전문직관, 진로, 행동

1)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

2)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생(교신저자 E-mail: inkyoung19@naver.com)

투고일: 2011년 3월 10일 심사완료일: 2011년 3월 25일 게재확정일: 2011년 4월 2일

진로준비행동의 개념은 처음으로 김봉환(1997)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국외논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진로준비행동이란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행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형태의 차원을 의미한다(김봉환, 1997).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진로결정수준과 함께 진로준비행동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준비행동과 학년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박정희, 김홍석, 2009; 박고운, 이기학, 2007; 손은령, 손진희, 2005; 이주희, 2004; 이제경, 김동일, 2004).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준비가 저학년부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고학년이 되어야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학 저학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자기 탐색 및 진로결정, 진로준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손은령, 손진희, 2005).

이와 더불어 성별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결정 수준은 낮으나 진로준비행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연, 이선순, 2006; 손은령, 손진희, 2005; 이주희, 2004). 이를 통해 낮은 진로결정 수준을 가진 여학생은 방향성 없는 진로준비행동을 높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반대로 남학생은 진로결정을 조기에 하지만 이에 적합한 진로준비행동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조성연, 이선순, 2006; 손은령, 손진희, 2005). 그러므로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년과 성별을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을 통한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간호학생의 간호행위에 대한 동기와 포부에 영향을 미치며, 신규간호사가 되어서는 현실충격을 줄이게 되어 직장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이승구, 이제경, 2008; 권영미, 윤은자, 2007). 현재 간호학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연구가 많지 않으나 진로정체감, 진로태도성숙에 관련된 요인과 간호전문직관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권영미, 윤은자, 2007)를 고려해볼 때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 전 간호학생을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취업을 앞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

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학생들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진로준비를 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진로지도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에 대해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확인한다.
-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에 대해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취업을 앞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루어 졌으며 각 간호대학 학과장에게 연구목적과 진행 절차 등에 대한 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하고 연구 진행에 대한 허락 하에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D광역시와 충청북도 J시에 위치한 2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취업 전 간호학생(전문대는 3학년, 대학교는 4학년)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 하였다. IRB 승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 작성 전 및 진행기간 동안 연구대상자는 어떠한 위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임을 알리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자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대상자수는 Cohen(1988)의 통계방법에 근거한 G Power 3.1.0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05$, 검정력 $1-\beta=.80$, 효과크기 .30로 64명을 산출하여 연구의 필요한 최소의 대상자를 확인하였으며, 실제 대상자는 편의추출한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미흡한 응답 및 무응답의 1명을 제외한 본 연구의 최종 연구 대상자는 199명이었다.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일반적 특성 9문항과 진로준비행동 16문항, 간호전문직

관 29문항으로 총 5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도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성별, 나이, 교육, 종교, 대학 입학 시 만족도, 동아리 활동, 임상실습 만족도,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곳, 간호(학)과 지원동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 폐쇄형의 질문을 총 9 문항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 진로 준비 행동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측정 도구를 도구 개발자의 허락 하에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의 범위는 16점에서 6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봉환(1997)이 사범대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검사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84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39이었다.

●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윤은자, 권영미와 안옥희(2005)가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를 도구 개발자의 허락 하에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도구는 총 29문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9문항, 사회적 인식 8문항, 간호의 전문성 5문항, 간호실무 역할 4문항, 간호의 독자성 3문항의 5가지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범위는 29점에서 1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5가지 하부영역 중 간호의 독자성 3문항은 부정형 문항이며, 역으로 점수화 하였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35이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199부의 자료는 SPSS/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진로준비행동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에 대해서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따른 진로준비행동간에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연령, 교육, 종교, 간호(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 대학 입학 시 만족도, 동아리 활동, 임상실습 만족도,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곳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99명으로 여학생이 81.4%를 차지하였다. 대상자 평균 연령은 21.87세(SD=.17)였으며, 20-24세가 전체의 88.9%였다. 교육은 전문학사가 149(74.9%)명이었으며, 종교는 무교 103명(51.8%), 기독교 45명(22.6%)순이었다. 간호(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취업에 용이한 것이 98명(49.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적성에 맞음이 34명(17.1%), 경제적 안정성이 22명(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입학 시 만족도는 만족이 142명(71.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126명(6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하는 학생이 100명(50.3%), 조금 만족하는 학생이 78명(39.2%)순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곳은 종합병원 161명(80.9%), 공무원 22명(11.1%)순 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은 <Table 2>와 같다.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측정가능 점수범위가 최저 65점에서 최고 188점이며, 평균 106.76±15.42점이었었다. 간호학생 간호전문직관의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간호의 전문성이 1-5점 기준에 평균점수가 3.95±.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간호실무역할(M±SD=3.82±.59), 전문직 자아개념(M±SD=3.75±.54), 사회적 인식 (M±SD=3.42±.63)순 이었으며, 간호의 독자성(M±SD=3.34±.79)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의 측정가능 점수범위는 최저 23점에서 최고 60점이었으며, 평균점수는 42.66±7.0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간호전문직관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23, p=.03). 대학 입학 시 만족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집단 간 차이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9)

Characteristic	Categories	Mean ±SD or n	%
Sex	Male	37	18.6
	Female	162	81.4
Age(yr)		21.87±0.17	
	20-24	177	88.9
	25-29	20	10.1
Education	30-37	2	1.0
	College	149	74.9
	University	50	25.1
Religion	Christian	45	22.6
	Catholic	16	8.0
	Buddhism	28	14.1
	None	103	51.8
	Other	7	3.5
Satisfaction of admission	Very satisfied	11	5.5
	Satisfied	142	71.4
	Satisfied a little	38	19.1
	Not satisfied	8	4.0
Club activities	Yes	73	36.7
	No	126	63.3
Satisfaction of entrance into a school	Very satisfied	9	4.5
	Satisfied	100	50.3
	Satisfied a little	78	39.2
	Not satisfied	12	6.0
Desirable job after graduation	General hospital	161	80.9
	Public service personnel	22	11.1
	Occupational health nurse	5	2.5
	Overseas nurse	5	2.5
	Other	5	3.0
The motive of application for Nursing	Advantageous employment	98	49.2
	Correct aptitude	34	17.1
	Scarcity value	10	5.0
	Score	5	2.5
	Economical stability	22	11.1
	Stable job(full age)	19	9.5
	Desire of family	10	5.0

<Table 2> Nursing professional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N=199)

Categories	Mean ±SD	Actual range	Possible range
Nursing professional values	106.76±15.42	65-142	29-145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3.75± .54	2.11-5.00	1-5
Social awareness	3.42± .63	1.00-5.00	1-5
Professionalism of nursing	3.05± .53	2.40-5.00	1-5
The role of nursing service	3.82± .59	2.00-5.00	1-5
Originality of nursing	3.34± .79	1.00-5.00	1-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42.66± 7.00	23-60	16-64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9.34, p=.00$). Scheffe test로 집단 간 비교를 한 결과 매우 만족하는 군의 평균이 124.00 ($SD=26.44$)점으로 만족하는 군의 평균 107.80($SD=13.73$)점, 조금 만족하는 군의 평균 99.76($SD=12.34$)점, 만족하지 않는 군의 평균 97.88($SD=16.72$)점 보다 간호전문직관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집단이 하지 않는 집단보다 간호전문직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57, p=.00$). 임상실습 만족도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7.35, p=.00$).

Scheffe test 결과 매우 만족하는 군의 평균은 122.78 ($SD=30.30$)점으로 조금 만족하는 군의 평균102.05($SD=15.55$)

<Table 3> The differ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N=199)

Characteristic	Categories	n	Mean ±SD	t/F/r	p	Scheffe
Sex	Male	37	111.81±18.31	2.23	.03	
	Female	162	105.60±14.50			
Age	20-37	199		.04	.62	
Education	College	149	106.95±14.42	.30	.77	
	University	50	106.20±18.23			
Religion	Christian	45	109.87±17.63	.79	.53	
	Catholic	16	106.38±11.63			
	Buddhism	28	103.68±13.71			
	None	103	106.47±15.73			
	Other	7	104.29± 7.25			
Satisfaction of entrance into a school	Very satisfied ^a	11	124.00±26.44	9.34	<.001	a>b,c,d
	Satisfied ^b	142	107.80±13.73			
	Satisfied a little ^c	38	99.76±12.34			
	Not satisfied ^d	8	97.88±16.72			
Club activity	Yes	73	112.27±18.69	3.57	<.001	
	No	126	103.56±12.14			
Satisfaction fo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ied ^a	9	122.78±30.30	7.35	<.001	a>c,d
	Satisfied ^b	100	109.32±12.24			
	Satisfied a little ^c	78	102.05±15.55			
	Not satisfied ^d	12	104.00±11.68			
Desirable jog after graduation	General hospital	161	107.07±14.69	.58	.68	
	Public service personnel	22	104.05±20.77			
	Occupational health nurse	5	103.40±14.94			
	Overseas nurse	5	114.40±18.31			
	Other	5	104.67±12.04			
The motive of application for nursing	Advantageous jog	98	104.83±14.38	2.34	.03	
	Correct aptitude	34	110.15±15.13			
	Scarcity value	10	101.80±13.66			
	Score	5	116.20±14.70			
	Economical stability	22	111.32±22.01			
	Stable jog(full age)	19	110.32±11.82			
	Desire of family	10	96.40± 9.87			

점, 만족하지 않는 군의 평균104.00(SD=11.68)점에 비해 간호 전문직관의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34, p=.03). 하지만 Scheffe test로 집단 간 비교를 한 결과 각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령, 교육, 종교,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곳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Table 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t=3.24, p=.00) 및 연령(r=.16, p=.03)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진로준비

행동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98, p=.00).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각 집단 간 진로준비행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 검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곳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각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F=5.43, p=.00).

해외간호사를 원하는 군의 평균은 56.40(SD=3.05)점으로 종합병원을 원하는 군의 평균 42.36(SD=6.86)점, 공무원을 원하는 군의 평균 41.82(SD=6.12)점, 산업 간호사를 원하는 군의 평균 42.20(SD=5.76)점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종교, 대학 입학 시 만족도, 간호(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

<Table 4> The differenc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N=199)

Characteristic	Categories	n	Mean ±SD	t/F/r	p	Scheffe
Sex	Male	37	45.95±6.27	3.24	<.001	
	Female	162	41.91±6.95			
Age	20-37	199		.16	.03	
Education	College	149	42.77±6.62	.37	.71	
	University	50	42.34±8.08			
Religion	Christian	45	44.11±6.41	1.77	.14	
	Catholic	16	42.63±7.03			
	Buddhism	28	43.18±6.82			
	None	103	42.27±7.11			
	Other	7	37.00±8.04			
Satisfaction of entrance into a school	Very satisfied	11	46.09±8.88	2.02	.11	
	Satisfied	142	42.51±7.02			
	Satisfied a little	38	41.45±5.96			
	Not satisfied	8	46.25±7.11			
Club activity	Yes	73	44.56±7.63	2.98	<.001	
	No	126	41.56±6.38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ied	9	47.89±8.62	3.04	.03	
	Satisfied	100	43.30±6.74			
	Satisfied a little	78	41.31±6.83			
	Not satisfied	12	42.17±7.26			
Desire job after graduation	General hospital ^a	161	42.36±6.86	5.43	<.001	d>a,b,c,e
	Public service personnel ^b	22	41.82±6.12			
	Occupational health nurse ^c	5	42.20±5.76			
	Overseas nurse ^d	5	56.40±3.05			
	Others ^e	5	42.67±6.86			
The motive of application for nursing	Advantageous job	98	41.98±6.73	1.01	.42	
	Correct aptitude	34	43.74±6.58			
	Scarcity value	10	45.10±7.31			
	Score	5	46.80±7.98			
	Economical stability	22	42.14±7.66			
	Stable job(full age)	19	43.53±7.34			
	Desire of family	10	40.50±8.41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r=.234$, $p=.00$)은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199)

Variabl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p)
Nursing professional values	.243(p<.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취업을 앞둔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및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간호전문직관 평균점수는 3.67점으로 권영미와 윤은자(2007)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을 측정 한 평균점수 3.60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 하부영역 중 간호의 전문성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간호실무역할,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274명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을 측정 한 연구결과(권영미, 윤은자 2007)와 동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간호전문직관의 정도가 높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집단일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학)과를 지원한 동기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간호전문직관의 정도가 높은 것은 1,431명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간호전

문직관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Martin, Yarbrough, & Alfred, 2003)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는 남자간호사가 많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간호사를 여성의 직업으로 인식 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남자 간호학생은 직업에 대한 남다른 의식을 가지고 간호(학)과를 선택하여 공부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구직난 속에서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선택한 남학생의 취업에 대한 강한 욕구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은 자기명확성과 가치관이 동아리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전혜경, 윤미선, 2010)를 고려해볼 때 자기명확성과 가치관이 뚜렷한 학생으로 이루어진 동아리 활동은 간호를 보는 가치관과 직결된 간호전문직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연결해 볼 수 있다.

또한 임상실습의 만족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Grainger와 Bolan(2005)의 연구에서 취업 전 간호학생, 즉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임상경험이 간호를 가치 있는 전문직이라고 인식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부분이며, 임상실습이 실제 교과 내용과 불일치하는 부분에서 오는 피리감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학생들에게는 이론과 실제를 접목한 실습환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문학과와 학사교육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인 3년제 간호학생은 교육과정에서 전문직과 에티켓 등 간호전문직과 관련된 과목을 통해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906명의 2년제 간호학생과 525명의 4년제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비교해 본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Martin, Yarbrough, & Alfred, 2003)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42.66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연구대상자가 취업에 가까워진 간호학생, 즉 최고 학년에만 제한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진로준비행동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높아지며, 진로준비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인은 학년(박정희, 김홍석, 2009; 박고운, 이기학, 2007; 손은령, 손진희, 2005; 이주희, 2004; 이계경, 김동일, 2004)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타당하다 하겠다. 연구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간호학생은 성별과 동아리 활동, 원하는 취업유형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 차이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높게 나타

난 결과와 일치하였다(박정희, 김홍석, 2009).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조성연, 이선순, 2006; 손은령, 손진희, 2005; 이주희, 2004)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간호학생의 학과 특성 및 진로방향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즉 남자 간호학생은 일반 남자 대학생과 달리 대부분 여자 간호학생과 경쟁하며, 간호사라는 특별한 직업에 진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남자 간호학생은 여자 간호학생에 비해 취업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흥미로운 결과는 동아리 활동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이다. 연구 결과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진로준비행동의 정도가 높음을 보였는데 이 같은 결과는 전혜경과 윤미선(2010)의 연구에서 동아리 활동이 자기명확성에 영향을 미쳐 진로결정능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변수로 언급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동아리라는 특별한 활동을 통한 가치관 확립 및 공동체 경험이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다. 덧붙여 간호학생은 봉사활동과 관련된 동아리 참여가 많으므로 이런 경험들은 학생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보이므로 진로를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직업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며, 앞으로의 직업에 대한 적응과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차이를 주는 일반적 특성의 변수로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곳, 즉 취업유형이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 80% 이상의 학생이 종합병원의 간호사를 선호하고 있었고, 해외간호사를 원하는 집단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진로준비행동 정도는 해외간호사를 원하는 집단이 간호사로서 보편적인 진로인 종합병원 간호사, 공무원, 산업 간호사를 원하는 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적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학생이 평범하고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에 비해 진로준비행동 역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유형을 진로준비행동의 변수로 본 국·내외 연구가 없어 연구결과의 정확한 비교 및 해석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결과는 추후에 반복연구를 통하여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상관성은 $r=.243(p<.001)$ 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전문직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진로준비행동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80%이상의 대상자가 졸업 후 종합

병원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것을 통해 간호학생은 진로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모습보다는 획일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우리나라 간호학생은 졸업 전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전문직관의 정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 이행한다는 상관관계를 고려해볼 때, 전문직으로서의 간호를 보는 시각에 따라 간호학생의 진로목표를 향해 준비하는 행동들은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대학교 교육 기간에 기본간호과학 및 기술과 같은 핵심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체계적인 교육과정안에 간호전문직관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전문화를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는 간호전문직관 함양을 임상실습에 통합시키는 것(Shaw & Degazon, 2008)이므로 간호전문직관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임상실습이 요구된다. 우선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시 학생이 간호의 독자적인 부분과 더불어 간호의 전문성과 실무에 대해 올바르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도하는 실습지의 간호사의 전문성이나 임상실습교수의 적극적인 지도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와같은 임상실습은 졸업 후 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간호학생의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파악하여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선행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이라는 변수를 각각의 다른 연구주제로 사용한 것과는 달리 한 연구에서 두 가지의 변수를 다루어 상관관계를 설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크기가 작고 졸업반 간호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제한시켰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취업을 앞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알아보고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대상자는 D광역시와 충청북도 J시에 위치한 2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취업 전 간호학생 1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취업 전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평균점수는 106.76점이었으며 간호전문직관 하부영역 중에서는 간호의 전문성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은 간호실무역할, 전문직 자아개념 순이었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42.66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를 보는 시각에 따라 간호학생의 진로목표를 향해 준비하는 행동들은 달라진다는 것으로서, 상관성이 약하게 나타났으나($r=.234,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반드시 간호전문직관이 높다고 해서 진로준비행동을 잘한다고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선행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을 각각 다른 연구주제로 사용한 것과는 달리 한 연구에서 두 가지의 변수를 같이 다루어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이라는 변수가 비슷한 양상을 보임을 파악하고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성이 뚜렷하게 높지 않아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연구대상자를 취업 전 간호학생으로 제한시켰으므로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덧붙여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교육 관련기관에서는 간호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해서 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적 지지와 간호전문직관 형성과 관련된 교과과정 개설 및 기존의 교육에서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권영미, 윤은자 (2007).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 사회성,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13(3), 285-292.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박고운, 이기학 (2007).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2), 409-422.
- 박정희, 김홍석 (2009).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1), 125-144.
-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 (2005).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5(6), 1091-1100.
- 이승구, 이세경 (2008). 한국 대학생의 취업목표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및 첫 직장 만족도 차이. *진로교육연구*, 21(3), 1-25.
- 이주희 (2004).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1), 103-114.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7(2), 399-417.
- 조성연, 이선순 (2006). 성인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 준비행동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9(1), 127-140.
- 조결자, 백승남 (2004). 4년제 정규과정과 RN-BSN과정 간호 학생의 간호관 비교. *간호행정학회*, 10(4), 417-425
- 이제경, 김동일 (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발달적 특성. *청소년상담연구*, 12(2), 107-123.
- 전혜경, 윤미선 (2010).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 특성에 따른 진로미결정 및 생활만족도와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7(3), 25-54.
- 한국교육개발원 (2009). 취업통계데이터서비스. Retrived Dec, 31, 2009 from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Web site: <https://www.kedi.re.kr/>
- 한상숙, 김명희, 윤은경 (2008).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1), 73-79.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rainger, P., & Bolan, C. (2005). Perceptions of nursing as a career choice of students in the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Nurse Education Today*, 26, 38-44.
- Hallin, K., & Danielson, E. (2008).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their 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Advance Nursing*, 61(1), 62-70.
- Hampton, G. M., & Hampton, D. L. (2004). Relationship of professionalism, rewards, market orientation and job satisfaction among medical professionals: The case of Certified Nurse-Midwiv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7(9), 1042-1053.
- Hwang, J. I., Lou, F., Han, S. S., Cao, F., Kim, W. O., & Li, P. (2009). Professionalism: the major factor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among Korean and Chinese nurses.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56, 313-318.
- Leduc, K., & Kotzer, A. M. (2009). Bridging the gap: A comparison of th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of students, new graduates, and seasoned professionals. *Nursing Education Research*, 30(5), 279-284.
- Martin, P., Yarbrough, S., & Alfred, D. (2003). Professional values held by baccalaureate and associate degre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5(3), 291-296.
- Rognstad, M. K., Aasland, O., & Granum, V. (2004). How do nursing students regard their future career? Career preference in the post-modern society. *Nurse Education Today*, 24, 493-500.
- Weis, D., & Schank, M. J. (2000).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7, 114-120.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Ko, Young Ji¹⁾ · Kim, In Kyung²⁾

1)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2) Doctoral Student, 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in senior nursing students. **Method:** The sample consisted of 199 nursing students before getting jobs who attended a nursing vocational college in Daegu and a nursing department of a university in J city of Chungcheongbuk-do.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first of May to the first of June in 2010. **Results:** The mean score was 106.76 for professional nursing values. The highest reported score of the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omains was professionalism of nursing and was followed by nursing practical rol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The mean score was 42.66 f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re was a low correlation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Conclusion:** This finding suggests nursing students have differences from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ccording to viewpoints about nursing as a professional job.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new curriculum and reinforce existing education for developing of professional nursing values. Moreover, nursing education institutes should set up educational objectives related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for improv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ey words : Students, Nursing, Behavior, Career counseling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In Kyung

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C.P.: 82-10-6211-7481 Fax: 82-42-545-8621 E-mail: inkyoung19@naver.com